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최경식 남원시장, 중앙부처 방문해 핵심 사업 당위성 설명·추진 여건 타당성 피력

남원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시장과 안순엽 기획조정실 당 관계자들은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남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국비 예산을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핵심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 출장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지난달 4월 22일부터 3일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별 부처 예산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최경식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백령·임안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 정비사업(732억원) △생안지구 자연재



최경식 남원시장과 안순엽 기획조정실 당 관계자들은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115억원) 등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방천지구 배수개선사업(96.05억원) △린바이오 소재 대량원료 공급센터 건립(88억원) 등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요구하였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15억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181억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683억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33억원)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 여건 등 타

당성을 피력했다. 최경식 시장은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찾아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 보완으로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선 국면과 정부에서는 시급성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이 녹록지 않지만, 주요 핵심 사업들은 전북자치도와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 생태 허브 '어울림 도서관'

남원시, 하루 평균 300명 이상 시민 찾아 문화기본권 확대

남원시가 2024년 정식 개관한 어울림 도서관이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대표 생활문화 공간으로 지역문화 지평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어울림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 정보, 문화가 흐르는 복합문화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8억원을 확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도서관을 조성, 현재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남원시민의 문화기본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무인예약 도서대출기, 반납기, 전자신문 키오스크, 사서 로봇 '페퍼', 디지털사서시스템, 좌석 예약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화면낭독 SW, 음성 증폭청취기 등을 갖추며, 정보 접근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라는 시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결과다.

어울림 도서관은 단순한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남원시가 '문화로 시민을 연결하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비전'을 현실화한 상징적 공간으로, 과거 '조용한 독서실'로 인식되던 도서관을 넘어, 시민이 배우고, 쉬고,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생태 허브'를 조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이시운 선수, 전국 사격대회 동메달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이시운 선수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8회 대구광역시대회(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0m 공기권총 종목 동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409개 팀, 2,881명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올해와 내년 각종 국제대회에 나설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이시운 선수는 이번 대회 본선 경기에서 578점을 기록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결선에서 217.4점을 획득해 최종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첫 번째 전국 사격대회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순창군의 도로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절박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주민 숙원사업 예산 확보 총력

최영일 순창군수, 정부세종청사 찾아 도로 개선 예산 반영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손꼽아온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12일 직접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 김완수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순창군의 도로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절박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방문에서 최 군수는 △국도 21호선(인계적성) 2차로 개량사업 △국도 24호선(순창적성) 4차로 확장사업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확장사업 등 3개 주요 노선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일일이 설명하며 직접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의 도로 여건은 단순히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로 선형 불량과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국도 21호선 인계~적성 구간은 급커브와 좁은 도로 폭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며, 실제로 이 지역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최 군수는 이 구간의 구조 개선 없이는 관광객 안전 확보와 지역 접근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도 24호선 순창~적성 구간 역시 이미 인접 지역은 4차선으로 확장 완료됐으나, 순창 구간만 2차로로 남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재계산 출렁다리와 웅골산 하늘길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연간 6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불편은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구간은 강천산, 지리산, 내장산을 연결하는 관광 핵심 루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 협소와 지·정체로 관광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설계는 마무리됐지만 총사업비 협의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최 군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조속한 협의와 예산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순창군은 2026~2030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을 앞두고 해당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3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다.

남자부에서는 김병국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서범규·설운수 조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여자부에서는 리코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리코·신유나 조가 개



인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팀 전체가 고른 활약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임실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세~18세)과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응급환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1건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 보건 의료원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지역간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이 큰 만큼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이 임실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경찰서, 드론으로 실종자 찾는다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13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순창군 예비군 지역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창지역에서는 해마다 치매환자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치 확인이 어려운 치매환자 실종의 특성상 발견까지 대규모 수색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순창경찰서는 순창 예비군 지역대 무인 수색 장비(드론)를 실종자 수색 현장에 도입, 신속한 발견으로 실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MOU를 맺었다.

이정호 순창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실종자 수색에 드론 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